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 — 룡정편]

◎ 김영화기자

새시대 민족단결진보의 꽃 활짝 피워



교육의 균형 발전과 민족단결 촉진 강화

14일,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 집중조사연구 취재팀은 민족단결의 새로운 기상으로 차넘치는 룡정시룡정실험소학교를 찾았다. 교정에 들어서니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전면포여와 선전란, 민족단결 문화장량이 한눈에 안겨왔고 교수청사에서 아이들의 광명한 글소리가 들려왔다.

룡정시룡정실험소학교는 118년의 역사를 지닌 교육의 요람으로 시종 당의 경도를 견지하고 새시대 당의 교육방침을 실천하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제반 교육사업을 참담게 추진하여 여러 민족 학생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한 새시대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힘쓰고 있다.

룡정시룡정실험소학교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학습, 전승하는 짚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통일판교재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으며 국가통용언어문자교육을 널리 보급해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이 조국의 문자를 사랑하고 문화적 동질감을 향상하도록 이끌었다. 학기마다 국학축제, 언어문화축제, 이야기왕 선발 등 활동을 전개하고 '한 학급 한개 브랜드' 문화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또

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제반 교육사업에 일관시키고 학교연합축제 등 관련 활동을 다채롭게 펼쳐 여러 민족 학생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개산튼진 흥변부민교육기지에 학교의 견학기지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견학활동을 펼쳐 흥색유전자를 전승하고

혁명정신을 계승하며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학생들을 이끌었다.

룡정시룡정실험소학교 당지부 서기 겸 교장인 왕영업은 "향후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과 교육사업에 관한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는 한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교원대오 건설을 더한층 강화하며 학교 운영 품질을 꾸준히 제고하여 교육의 질 좋고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단결의 촉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흥색혈맥 이어나가 민족부흥 실현

같은 날, 취재팀은 룡정시서서류관 1층에 위치해있는 한락연생애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을 찾았다. 면적이 357평방미터이고 전시 길이가 141미터인 한락연생애전 중

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의 전신은 한락연예술사진전시관인데 2018년 5월 현판된 이래 총 1만 3,000여명의 사회각계 인사를 접대했다. 한락연생애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은 문서보존, 력사교육 등 역할을 발휘하면서 룡정시의 애국주의교양과 정신문명 건설에 기여했다. 이 견학중심은 선후로 룡정시애국주의교양기지, 연변주애국주의교양시범기지, 연변주렴정교양기지, 민족단결진보교양기지, 소수민족문화전승기지로 명명되기도 했다.

한락연생애전 첫번째 부분은 주로 다매체와 4쪽의 유화로 한락연의 혁명생활을 반영하였고 두번째 부분은 사진, 력사자료, 예술작품, 해설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간고한 길 탐색', '동북에서의 투쟁', '프랑스 류학', '항일의 세월', '서북에서의 투쟁', '혁명부부', '혁명정신 전승' 등 7개 부분으로 나누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한락연의 위대한 업적과 그의 예술적 성과들을 년대별로 상세하게 보여주었다.



▲ 한락연생애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 입구



▲ 주민의 제보전화를 받고 있는 길명사회구역 사업일군

소개에 따르면 룡정시에서는 한락연생애전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외에도 개산튼진 흥변부민교양훈련기지 등 4개의 주급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견학중심을 건설하여 여러 민족 인민들이 정확한 국가관을 수립하고 동질감과 응집력을 제고하도록 인도했다.

여러 민족이 단란하게 생활하는 행복한 사회구역으로

룡정시 동남부에 위치해있는 안민가도 길명사회구역은 호적인구가 2,230가구에 5,041명, 상주인구가 2,261가구에 4,287명으로 여러 민족 주민들이 화목하게 모여살고 있다.

최근년간 이 사회구역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사회구역 '령거리' 사업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민족단결진보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동해왔다.

소개에 따르면 길명사회구역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종합 원스톱 봉사대청을 만들어 여러 민족 대중들을 위해 최저생활보장, 고령보조금, 계획출산 등 20여가지의 봉사를 제공하고 휴일당반제, 전 과정 대행제, 24시간 전화접수제를 실시하면서 봉사의 질을 꾸준히 제고하고 있다.

또 '령거리' 사업법을 토대로 기층당건설, 사회치리, 민족단결을 일체화한 '전 분야 격자(网格)'를 구축하

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명절을 보내는' 다채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주민들의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중토론일'을 만들어 여러 민족 주민들이 사회구역의 일, 생활과정의 어려움, 이웃 사이의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어려움을 제때에 해결하고 이웃간에 화목하게 지내며 적극적으로 조화로운 사회구역 구축 사업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 사회구역에서는 양로활동중심, 독서실, 로년식당, 영화관을 세워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석양무용대, 민족문화성악대, 민족탁구팀 등 여러 문제대오를 무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다.

길명사회구역당총지 서기 조복권은 "여러 민족 주민들간의 교류를 강화하여 단란하게 함께 생활하고 여러 민족 대중을 이끌고 함께 진보하면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 생활하는 행복한 사회구역으로 꾸러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년간 민족지역, 변경지역, 로혁명근거지로서의 룡정시는 시종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주선을 둘러싸고 여러 민족 대중들을 단합인솔해 새시대 민족단결진보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제 2 회 아시아대학생체육연합회 축구 아시안컵 룡정서 폐막



▲ 남자조 우승을 차지한 한국경일대학팀

제 2 회 아시아대학생체육연합회 축구 아시안컵이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정시에서 막을 내렸다. 8일간의 치열한 각축전을 통해 한국경일대학팀과 상해체육대학팀이 각각 남녀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한국, 타이와 중국 오펜 등 8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8개 남자대학생 대표팀과 4개 여자대학생 대표팀이 참가했다. 중국학생체육연합회에서는 남녀 각각 2개 대표팀이 참가했는데 남자팀은 북경항공향천대학팀과 연변대학팀이고 여자팀은 상해체육대학팀과 북경사범대학팀이다. 여자조 결승전에서 상해체육대학팀과 타이아시아학자대학팀이 맞붙었다. 두 팀은 규정 시간에 1대1로 비겼고 승부차기 끝에 상해체육대학팀이 5:3으로 타이아시아학자대학팀을 이기고 우승했다. 북경사범대학팀은 8대0으로 인도칼랑가공업기술대학

팀을 가볍게 이기고 3위를 차지했다.

"준우승도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타이아시아학자대학교팀의 풍페론·피라만선수는 "이곳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나는 이곳의 미식과 아름다운 경치를 사랑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었고 모두가 함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남자조 결승에서는 한국경일대학팀이 타이국립법정대학팀을 2-0으로 이기고 우승했다. 북경항공향천대학팀은 연변대학팀을 2대0으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일대학팀 주장 김효민은 "조별 리그부터 결승, 최고의 시상대까지 올라가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번 대회 처음으로 연변에 왔는데 이곳의 장소와 시설, 자연 풍경과 풍토인정 모두가 깊게 인상에 남는다고 말했다. / 김파기자



강팀에 강한 거물사냥군이 되어라!



▲ 지난주 흑룡강빙성팀과 연변룡정팀간 경기의 한 장면

9월 28일 19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현재 갑급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슈퍼리그 진출 유력 후보인 운남옥곤팀(이하 '운남팀')을 맞아 자웅을 겨루게 된다.

6라운드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갑급리그 순위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슈퍼리그 진출권을 보면 운남팀이 54점으로 3위인 광둥팀보다 11점을 앞서고 있어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3 시즌 슈퍼리그 진출선이 61점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2승을 하면 슈퍼리그 진출을 확정하게 되는 운남옥곤은 이미 한발을 슈퍼리그에 들여놓은 거나 다름없다. 그 외 나머지 한개 석은 대련영박, 광주, 소주동오, 중경동량롱, 광서평과하로, 료녕철인 등 6개팀 가운데서 산생되는데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다음 리그 잔류를 다투는 하위권을 보면 무석오구와 강서려산이 갑급리그 보존에 대한 강렬한 욕망으로 승진고를 올리면서 13위 정도홍사와 14위 불산남사를 직접 위협하고 그 나머지 흑룡강빙성, 상해가정회룡, 연변과 같은 팀들을 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갑급리그의 나머지 경기에서 상위권과 하위

권에 든 팀들과의 경기는 경기마다 결승 같은 경기로 될 것이며 같은 권에 속한 팀들간의 경기는 더욱 생사판가리 겨루어 될 것이다.

그런데 갑급리그 잔류를 확정짓지 못한 연변팀의 나머지 경기를 살펴보면 9월 28일 운남(홍장), 10월 6일 강서려산(원정), 10월 12일 광서평과하로(원정), 10월 19일 정도홍사(홍장), 10월 26일 광주(원정), 11월 3일 불산남사(홍장)로 전부가 상, 하위권 팀들이여

서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15위 무석오구와 겨우 8점 차로 앞서다 보니 발편잡을 잘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1승을 겨두어야 갑급리그 잔류 안전지대에 착륙할 수 있다.

옛말에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면 용감한 자가 승한다고 하였다. 제야미리 점수 차이가 27점이나 되고 5월 12일 원정에서 1:5로 패했다 해도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다. 거기에 이기형 감독이 사령탑을 잡은 후 보여

준 '먼저 먹고 후에 치기' 전술이 물이 오르는 중이다.

운남옥곤은 진영이 호화로운 강팀이라고 할 수 있다. 22골을 석사시킨 무석쿠이(30번)를 앞세운 한자룡(27번), 라뿌야드(9번), 장일봉(36번) 등 공격선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알렉산드로(10번), 라경(7번), 조우호(6번)가 받쳐주는 중앙선이 두터우며 조해정(33번), 이등(18번), 강적홍(5번)이 지키는 수비선이 튼튼하다. 거기에 24경기를 출전한 리그 최연소 문자기 요호양(17세, 1번)이 지키는 골문도 빈틈없다.

그러나 연령 구조에서 요호양을 제외하고 대부분 출전 선수가 30대 이상의 로장들이라는 점, 기후 일교차가 큰 연변에 처음 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남팀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우며 짧고 빠른 패스를 위주로 하는 연변팀의 전술과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자기를 알고 상대를 아는 전제하에서 철통수비로 무석쿠이를 비롯한 공격수들을 묶어두고 한자룡과 알렉산드로의 공격 조직을 와해시킨다면 패속반격의 기회로 얼마든지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강팀에 강한 연변팀이 한변 쯤 거물사냥군이 되어보길 희망한다.

/ 김태국기자